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Mothers'and Children's Emotional Instability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Perceived Mediating Effect of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한아름¹ 한세영²

Ah-Reum Han¹ Sae-Young Han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others' and children's emotional instability and materna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53 4th,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in Seoul and Incheon. Data were analyzed by path analysis using AMOS 21.0.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and positive event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hildren's emotional instability and materna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Also, mothers' and children's emotional instabili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Second, mothers' emotional instability had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and positive events through materna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Finally, children's emotional instability had not only significant effects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positive achievement events, but also indirect effects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and positive events through materna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oth environmental and individual factors, including mothers'and children's emotional instability and materna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need to be considered to explai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Also,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and parental education.

key words emotional instability,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attributional style

¹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²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evenhow@ewha.ac.kr)

I. 서론

귀인양식(Attributional style)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인지적 양식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추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실패 또는 성공 상황을 겪을

때, 실패와 성공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학업에서의 실패가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상황에서도 실패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우울하고 무기력하며, 미래의 학업 성취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수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인해 성공적 결과를 얻었으며, 다른 상황에서도 늘 성공적 결과를 얻을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감, 높은 학업동기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귀인양식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상황을 특정영역(성취상황, 대인관계 상황)으로 구분하지 않고, 긍정 또는 부정적 상황으로만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귀인양식은 영역 특정적(domain-specific)이며, 어떤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인가에 따라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Metalsky, Halberstadt 그리고 Abramson(1987)의 연구에서는 성취에 대한 귀인양식과 학업실패상황이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Carter와 Garber(2011)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인지양식은 대인관계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성취상황에 대한 인지양식은 성취상황과 각각 독립적으로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양식과 외로움, 수줍음과의 관계를 밝힌 Anderson과 Anoult(1985)도 외로움과 수줍음 등의 정서는 대인관계에서 유발되는 정서로 대인관계와 무관한 상황과 달리 대인관계와 관련된 실패와 성공에 대한 귀인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귀인양식을 평가할 때,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긍정적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뿐 아니라 각각의 상황을 성취, 대인관계 영역으로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한다.

귀인양식은 세 가지 차원(원인의 소재, 안정성, 보편성)에 따라 두 가지 귀인양식으로 구분된다.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요인으로 귀인하거나, 긍정적인 상황의 원인을 외적, 일시적, 상황특정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을 부정적 귀인양식이라고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귀인양식이 높은 수준의 우울 및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변인임을 보고하였다(Fresco, Alloy, & Reilly-Harrington, 2006; Hu, Zhang, & Yang, 2015; Tiggemann, Winefield, Goldney, & Winefield, 1992). 또한, 부정적 귀인양식을 보이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외로움과 수줍음을 느끼며(Anderson & Arnoult, 1985),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냈다(Glasgow, Dornbusch, Troyer, Steinberg, & Ritter 1997). 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외적이고 일시적, 특수한 것으로 귀인하거나, 긍정적인 상황에서 내적이고, 안정적, 보편적으로 귀인하는 것을 긍정적 귀인양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보이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적 태도와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였으며(Zhang et al., 2014), 또래와의 갈등에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이민영, 김광웅, 2011),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ouston, 2016). 결과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부정적 귀인양식을 지양하고, 긍정적 귀인양식을 강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귀인양식이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발달과 적응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했고, 귀인양식의 발달적 결과를 밝혀왔으나, 개인마다 귀인양식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귀인양식의 선행요인을 밝힌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부정적 귀인양식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귀인양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귀인양식에서의 개인차를 보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적 특성을 개인적 요인으로, 부모의 성격적 특성과 양육행동을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적 불안정성(Emotional instability)은 불안, 우울, 긴장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경향이 높은 성격특성으로, 개인의 행동과 사고, 감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감정의 기복이 크고, 쉽게 화를 내거나 동요하며 우울, 불안 죄책감, 자기비난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DeYoung, Quilty, & Peterson, 2007; Schneider, Rench, Lyons, & Riffle, 2012). 또한, 이들은 비합리적 사고, 자기 패배적(self-defeating)인 태도, 적대감, 타인의 비판에 민감함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McCrae & Costa, 1987). 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건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위협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chneider et al., 2012), 이들이 자주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Watson & Clark, 1984).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 환경에 대한 해석하는 방식은 귀인양식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들이 자주 경험하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도 부정적 귀인양식과 관련성이 높다.

성격적 특성과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성인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격적 특성과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성인기 및 청소년기 연구에서 밝혀진 정서적 불안정성 성격특성이 귀인양식간의 관계를 토대로 할 때,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귀인양식을 더 많이 보이며, 긍정적 귀인양식을 적게 보일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정서적 불안정성과 귀인양식 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Cheng과 Furham(2001)의 연구결과,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상황에 대해 내적, 안정적, 보편적으로 귀인(부정적 귀인양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격적 특성과 귀인양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Poropat(2002)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귀인양식을 보일 뿐 아니라, 긍정적 사건에 대해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희망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적 안정성 수준이 낮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igby와 Huebner(2005)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격적 특성과 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인 귀인양식을 보이는 반면, 부적응적인 귀인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다양한 귀인 양식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자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 상

호작용하는 방식은 자녀의 정서적 발달 뿐 아니라, 자신의 둘러싼 주변 세계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온정적으로 대하며, 지지와 수용을 통해 안정적인 신뢰를 형성할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하는 양육으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귀인양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긍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안정적인 요인으로, 부정적 결과의 원인을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Tiggemann et al., 1992). 또한, 부모의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양육은 자녀가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내적, 안정적, 보편적인 요인으로 여기는 부정적 귀인양식을 적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Velez et al., 2014), 자녀의 적응적인 귀인양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여종일, 정문자, 2011).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자율적, 민주적, 애정적,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받은 아동이 성공 및 실패상황에서 노력,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에 귀인하고, 과제 난이도, 타인, 운과 같은 외적요인에 적게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일, 이상주, 권기형, 2004; 이소영, 허균, 2012). 이 외에도 부모의 애정과 지도, 통제가 결여된 양육 뿐 아니라 부모가 충분한 설명과 지도 없이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양육은 청소년 자녀가 역기능적인 귀인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방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자녀들은 학업 성취를 자신의 낮은 능력 또는 운, 과제난이도, 교사의 편견과 같은 외적 요인에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lasgow et al., 1997).

한편, 아동의 성격적 특성은 아동의 귀인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의 성격적 특성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Belsky(1984)는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과정모델에서, 부모 자신의 특성과 맥락적 특성 뿐 아니라 아동의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의 성격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성격특성 중에서도 정서적 불안정성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강압적, 방임적, 과잉반응적인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는 반면(Prinz et al., 2003), 온정적인 양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field et al., 2012). 또한 쉽게 화를 잘 내고 불안정한 기분을 나타내는 아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부모의 비밀관적인 훈육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ngua & Kovacs, 2005).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emotionality)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 및 유아의 기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으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격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귀인양식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의 성격적 특성 외에도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성격적 특성은 개인의 행동적, 정서적 발달 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의 성격적 특성이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된다(Belsky, 1984). 특히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격적 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neuroticism)이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한지현과 이진숙의 연구(2015)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반응적인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부적이고 제재하는 양육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하게 Coplan, Reichel 그리고 Rowan의 연구(2009)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Schofield 등(201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정서적 안정성을 보일수록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Prinz, Stams, Deković, Reijntjes, & Belsky, 2009),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낮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자율적인 지도, 감독을 제공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과 자녀의 귀인양식과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귀인양식 각각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과 양육행동, 자녀의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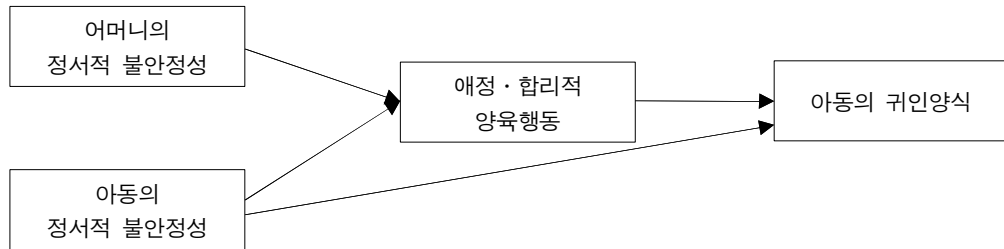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아동의 성격적 특성 뿐 아니라 부모의 성격적 특성과 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성격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 뿐 아니라 아동과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이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강화시키고, 부정적 귀인양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아동기에 독특한 인지적 양식을 발달하며 안정화된다는 선행연구들을(Gibb et al., 2006; Mezulis, Hyde, & Abramson, 2006) 고려할 때, 긍정적인 귀인양식 형성을 위해 학령기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부모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귀인양식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Mezulis et al., 2006; Velez et al., 2014)한 바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아동의 귀인양식은 어

떠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4학년 84명(33.2%), 5학년 82명(33.2%), 6학년 87명(32.4%) 총 253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학생은 120명(47.4%), 여학생은 133명(52.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66명(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68.7%, 고졸 24.5% 순이었으며, 직업의 경우에는 무직 또는 가정주부 51.4%,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15.8%, 일반사무직 및 보안업무 11.1%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귀인양식

아동의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Conley, Haines, Hilt 그리고 Metalsky(2001)가 제작한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ventory: CASI)을 정미영(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번안한 뒤 다시 역번역 작업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상황(8가지)과 긍정적 상황(8가지) 총 16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황들은 대인관계 영역(4가지)과 성취영역(4가지)로 되어있다.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부정적 성취 상황에는 '선생님께 제출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에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나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긍정적 성취상황에는 '내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응답자는 제시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적고, 그 원인에 대

해 3가지 차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통제소재(밀줄에 적은 이유는 나 때문입니까?), 안정성(밀줄에 적은 이유가 얼마나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보편성(밀줄에 적은 이유는 다른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 귀인양식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귀인양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안정적,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적인 성취상황에서 귀인양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상황에서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귀인양식도 긍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귀인양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대인관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긍정적 성취상황에서 귀인양식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성취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안정적, 보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각각 12~84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 .77, 부정적 성취상황 .82,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 .82, 긍정적 성취상황 .85이다.

2)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John, Caspi, Robins, Moffitt 그리고 Stouthamer-Loeber (1994)가 개발한 아동용 성격 5요인 척도(California Child Q-set: CCQ)를 황춘선(2010)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 정서적불안정성 총 5개의 하위요인과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10 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내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는 놀림을 받거나 비판을 받으면 쉽게 상처를 받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0이다.

3)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하고 이은주(2005)가 번안한 성인용 기질척도(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EAS)를 사용하였다. EAS는 정서불안정(distress), 공포(Fearfulness), 분노(Anger),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bility) 5개 하위요인으로 각각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서불안정(distress)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자극이 주어질 때,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각성을 보이며 반응하고 고통을 느끼는 특성으로, 성인이 되어도 지속적 으로 나타나며, 성격 특성의 하나로 간주한다(Buss & Plomin, 1984). 이에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불안정(distress) 4문항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는 쉽게 의기소침해진다.', '나는 정서적으로 쉽게 화를 내는 편이다' 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78이다.

4)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재운(2013)이 사용한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18문항을 아동 보고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에는 ‘엄마는 나를 껴안아주고 다독거리주신다’, ‘엄마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 많이 보인다고 지각함을 뜻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94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조사 수행에 앞서, 초등학생의 질문지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생 5명과 학부모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아동용 및 어머니용 질문지는 연구자가 서울 및 인천지역의 4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배부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져 어머니가 응답하여, 각 담임교사에게 보내져,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담임교사로부터 아동용, 어머니용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아동용, 어머니용 질문지 각각 386부를 배부하여 총 285쌍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53쌍의 질문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모형인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아동의 귀인양식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한 후,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χ^2 , NFI,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와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귀인양식 간의 상관관계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부정적인 대인관계상황과 성취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유의한 정적상관(각각 $r = .17$, $r = .15$, $p < .01$)을 보인 반면, 애정·합리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각각 $r = -.28$, $r = -.31$, $p < .001$). 즉,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

〈표 1〉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N = 253)

	1	2	3	4	5	6	7
1. NAI	1.00						
2. NAa	.78***	1.00					
3. NPi	.22***	.18**	1.00				
4. NPa	.21***	.18**	.77***	1.00			
5. CN	.17**	.15*	-.13*	-.18**	1.00		
6. AR	-.28***	-.31***	.18**	.21**	-.26***	1.00	
7. MN	.03	.00	-.00	-.09	.05	-.14*	1.00
평균	3.84	4.34	4.86	4.93	2.15	4.08	2.42
표준편차	0.97	1.07	0.97	1.08	0.69	0.76	0.76
왜도	0.26	-0.08	-0.14	-0.19	0.18	-0.91	0.41
첨도	0.48	-0.09	-0.12	-0.22	-0.83	0.65	0.08

* $p < .05$, ** $p < .01$, *** $p < .001$.

주. 1. NAI=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 2. NAa=부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 3. NPi=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 4. NPa=긍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 5. CN=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6. AR=애정·합리적 양육행동, 7. MN=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

리적인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나타냈다. 또한,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과 성취상황에서의 귀인양식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적상관(각각 $r = -.13$, $r = -.18$, $p < .05$)을 보인 반면, 애정·합리적 양육행동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각각 $r = .18$, $r = .21$, $p < .01$). 즉,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성이 낮고,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긍정적 귀인양식을 나타냈다.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 절대값이 3미만, 첨도 절대값이 10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의 값이 1.021~1.090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어머니와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이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다음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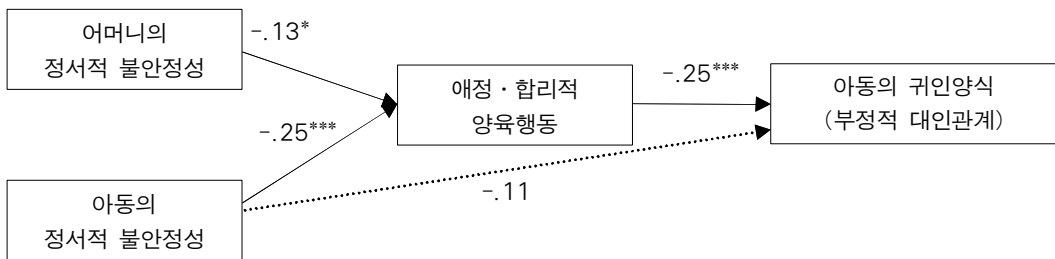
먼저, 부정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 = .037$

<표 2> 모형1의 경로계수 및 적합도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13	-.13*	.06	-2.18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27	-.25***	.07	-4.12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아동의 귀인양식(부정적 대인관계)	.15	.11	.08	-4.00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 아동의 귀인양식(부정적 대인관계)	-.32	-.25***	.09	1.77

$\chi^2 = .037(df = 1)$, NFI = .999, TLI = 1.126, CFI = 1.000, RMSEA = .000

* $p < .05$, *** $p < .001$.



[그림 2]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이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p < .05$, *** $p < .001$.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df = 1$), NFI = .999, TLI = 1.126, CFI = 1.000, RMSEA = .00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2>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beta = -.13$, $p < .05$)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beta = -.25$, $p < .001$)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5$, $p < .001$). 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가 불안정할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며, 어머니의 애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인 귀인양식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3. 어머니와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이 부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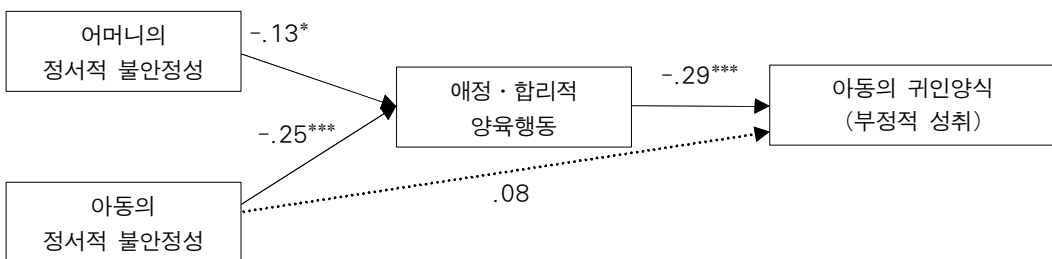
모형 2의 부정적인 성취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 = .561(df = 1)$, NFI = .989, TLI = 1.060, CFI = 1.000, RMSEA = .000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

<표 3> 모형2의 경로계수 및 적합도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13	-.13*	.06	-2.18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27	-.25***	.07	-4.12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아동의 귀인양식(부정적 성취)	.12	.08	.10	1.23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 아동의 귀인양식(부정적 성취)	-.41	-.29***	.09	-4.73

$\chi^2 = .561(df = 1)$, NFI = .989, TLI = 1.060, CFI = 1.000, RMSEA = .000

* $p < .05$, *** $p < .001$.



[그림 3]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이 부정적 성취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p < .05$, *** $p < .001$.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의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beta = -.13, p < .05$)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beta = -.25, p < .001$)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부정적 성취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9, p < .001$). 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며, 어머니가 애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성취 상황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인 귀인양식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4. 어머니와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이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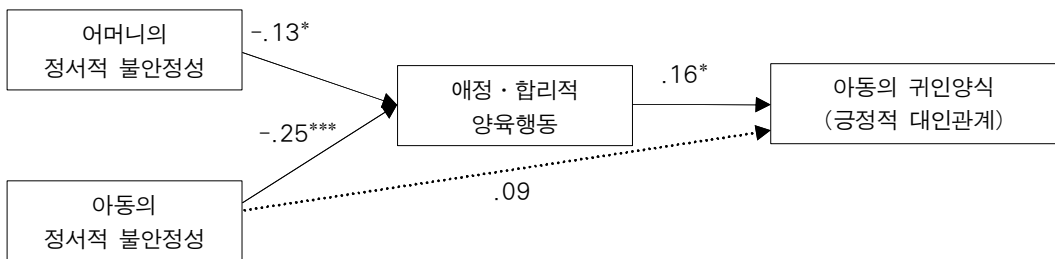
모형 3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 = .156(df = 1)$, NFI = .995, TLI = 1.189, CFI = 1.000, RMSEA = .000 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4>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어머니($\beta =$

<표 4> 모형3의 경로계수 및 적합도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13	-.13*	.06	-2.18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27	-.25***	.07	-4.12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아동의 귀인양식(긍정적 대인관계)	-.12	-.09	.09	-1.36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 아동의 귀인양식(긍정적 대인관계)	.20	.16*	.08	2.49

$\chi^2 = .156(df = 1)$, NFI = .995, TLI = 1.189, CFI = 1.000, RMSEA = .000

* $p < .05$, *** $p < .001$.



(그림 4)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이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p < .05$, *** $p < .001$.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13$, $p < .05$)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beta = -.25$, $p < .001$)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 $p < .05$). 이는 어머니와 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며, 어머니가 애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귀인양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5. 어머니와 아동이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이 긍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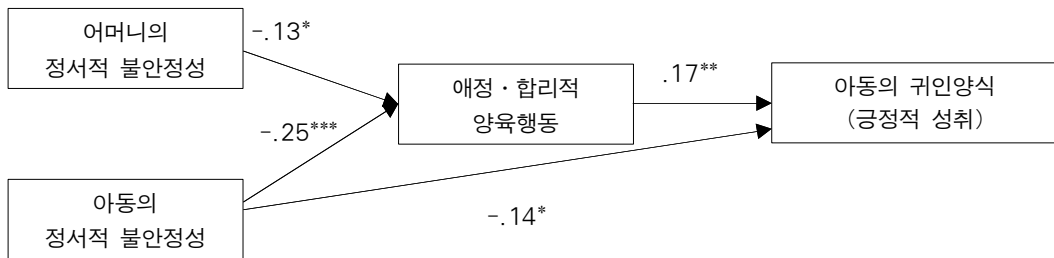
모형 4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 = .971(df = 1)$, NFI = .975, TLI = 1.005, CFI = 1.000, RMSEA = .000 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결과는 <표 5>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

<표 5> 모형4의 경로계수 및 적합도

경로	B	β	SE	C.R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13	-.13*	.06	-2.18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27	-.25***	.07	-4.12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 아동의 귀인양식(긍정적 성취)	-.21	-.14*	.10	-2.16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 아동의 귀인양식(긍정적 성취)	.24	.17**	.09	2.72

$\chi^2 = .971(df = 1)$, NFI = .975, TLI = 1.005, CFI = 1.000, RMSEA = .00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이 긍정적 성취 상황에서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p < .05$, ** $p < .01$, *** $p < .001$.

면, 어머니($\beta = -.13, p < .05$)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beta = -.25, p < .001$)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긍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4, p < .01$). 또한,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긍정적 성취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 p < .001$). 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며,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애정·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귀인양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 상황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귀인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으로 나타났다($\beta = -.29 \sim -.25, p < .01$). 그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eta = .06 \sim .07, p < .01$),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도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3 \sim .04, p < .05$).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귀인양식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영향이 가장 크며($\beta = .16, p < .05$) 그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각각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

〈표 6〉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변인들의 효과분석

구분	아동의 귀인양식											
	부정적 대인관계			부정적 성취			긍정적 대인관계			긍정적 성취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	-	.03*	.03*	-	.04*	.04*	-	-.02*	-.02*	-	-.02*	-.02*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11	.06**	.17*	.08	.07**	.15*	-.09	-.04**	-.13*	-.14*	-.04**	-.18*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25***	-	-.25***	-.29**	-	-.29**	.16*	-	.16*	.17*	-	.17*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13, p < .05$, $\beta = -.02, p < .05$). 반면, 긍정적 성취상황의 경우,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8, p < .05$),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beta = -.17, p < .05$)을 미치고,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 p < .05$).

종합해보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귀인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인 귀인양식은 증가하고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귀인양식은 감소하였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아동은 특히 긍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긍정적 귀인양식을 적게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부정적 및 긍정적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합리적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귀인양식을 적게 하고, 긍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귀인양식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

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자기 비난적인 귀인양식을 보이는(Cheng & Furnham, 2001) 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보이며,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Poropat, 2002; Rigby & Huebner, 2005)와 유사한 결과이다. 감정기복이 크고, 불안과 우울, 좌절감을 자주 경험하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을 탓하고 비난할 뿐 아니라 성공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얻은 결과라 여기는 부정적 귀인양식을 더 보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지지적이고 수용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귀인양식을 적게 보이고(Tiggemann et al., 1992; Velez et al., 2011), 적응적인 귀인양식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여종일, 정문자,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을 하는 부모는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자녀를 따듯하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아동은 실패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는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아동의 귀인양식 간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과 자녀의 귀인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아동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이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기 보다는 어머니의 성격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반영되어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상관을 보여, 어머니와 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는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나타내며(한지현, 이진숙, 2015; Coplan et al., 2009; Schofield et al., 2012),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부모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Prinz et al., 2003; Schofield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걱정이 많고 쉽게 불안하고 우울함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는 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높게 경험할 수 있어, 자녀의 요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온정적으로 대하고 수용하는 긍정적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자녀의 특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긍정적 양육을 적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요인이 어머니 자신의 성격 뿐 아니라 아동의 성격적 특성임을 밝혔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부정적 및 긍정적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고, 그 결과 아동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귀인양식이 증가하고, 긍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귀인양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영

향을 미치고(한지현, 이진숙, 2015),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귀인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Glasgow et al., 1997)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감정의 기복이 크고, 잦은 불안과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는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어 자녀의 요구와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 자신이 주변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양육행동을 통해 이러한 사고양식이 자녀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육을 경험하고 상호작용을 한 자녀들도 주변 환경과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자신의 실패와 성공경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갖고 긍정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성격적 특성으로 인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양육하는 데 제한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사고와 발달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 자신이 부정적 정서를 잘 다루고 조절하며,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노력함으로써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자녀와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긍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부정적 및 긍정적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갖는데 직접적으로 제한이 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아동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인해 부정적 상황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인 귀인양식이 증가하고, 긍정적 상황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귀인양식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반대되는 정서적 안정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긍정적 귀인양식을 보인다는 선행연구(Poropat, 2002; Rigby & Huebner, 2005)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Lengua & Kovacs, 2005; Prinzie et al., 2003; Schofield et al., 2012), 부모의 양육행동이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경일 등, 2004; 여종일, 정문자, 2011; 이소영, 허균, 2012; Velez et al., 2014)와 유사한 연구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수준은 지각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어머니 자신의 성격적 특성 뿐 아니라 자녀의 성격적 특성과 정서적 상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들(Belsky, 1984; Kornienko, 201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과 합리적인 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반면에,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거부적이고 덜 온정적인 부정적인 양육을 이끌어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의 행동에 자녀가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신의 성격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정적인 성격특성을 보임으로서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관계를 방해하더라도, 어머니는 자녀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애정적이고 지지

적이며,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아동의 성격적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이 대인관계와 성취상황에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실패경험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이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기대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을 할 때에도 아동이 성취감,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수용하며 격려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다른 상황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만 있었으나, 긍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귀인양식에만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 성격 특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서 성공한 경험과 성공의 원인이 자신의 공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부심, 자신감, 만족감, 성취감 등의 긍정적 정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성취활동에 대한 동기와 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진 아동은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성취경험을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 얻은 결과고 여기기보다는 ‘운’이나 ‘다른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자신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와 같이 해석하거나,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보다 초점을 둘 수 있다. 그 결과, 불만족스러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뿐 아니라 미래의 성취상황에 대한 동기와 결과도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발달하는데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성취결과에 대해 아동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아동의 능력과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고려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근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자녀의 귀인양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으로 성격적 특성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귀인양식은 경험한 사건을 추론하는 인지적 활동의 한 측면으로 연령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성별에 따라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성격 뿐 아니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을 부정적, 긍정적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뿐 아니라, 각각의 상황을 성취와 대인관계 영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세분화된 일상에서 보이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귀인양식 발달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강화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귀인양식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머니가 자녀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성격적 특성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애

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힘으로써, 부모교육 및 아동의 귀인 훈련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박경일, 이상주, 권기형 (2004). 부모 양육태도와 귀인성향 및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 177-200.
- 박재운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기질-양육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종일, 정문자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와 귀인양식과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3**(1), 53-64.
- 이민영, 김광웅 (201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행동통제특성과 내외통제소재 및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 이소영, 허균 (2012).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귀인성향 및 정서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지**, **14**(1), 309-317.
- 이은주 (2005). 취학전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영 (2009). 청소년의 귀인양식과 수치심 및 죄책감 경향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지현, 이진숙 (2015). 어머니의 5 요인 성격특성과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5), 173-188. doi:10.5723/KJCS.2015.36.5.173
- 황춘선 (2010). 초등학생의 성격 5요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C. A., & Arnoult, L. H. (1985). Attributional models of depression, loneliness, and shyness. J. Harvey & G. Weary (Eds). *Attribution: Basic issues and applications* (pp. 50-279). NY: Academic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doi:10.2307/1129836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rter, J., & Garber, J. (2011). Predictors of the first onset of a major depressive episode and changes in depressive symptoms across adolescence: Stress and negative cogni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4), 779-796. doi:10.1037/a0025441
- Cheng, H., & Furnham, A. (2001). Attributional style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happines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3), 307-327. doi:10.1023/A:1011824616061

- Conley, C. S., Haines, B. A., Hilt, L. M., & Metalsky, G. L. (2001). 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terview: Developmental tests of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6), 445-463. doi:10.1037/t04342-000
- Coplan, R. J., Reichel, M., & Rowan, K. (2009). Exploring the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personality,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A focus on emo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2), 241-246. doi:10.1016/j.paid.2008.10.011
- DeYoung, C. G., Quilty, L. C., & Peterson, J. B. (2007). Between facets and domains: 10 aspects of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880-896. doi:10.1037/0022-3514.93.5.880
- Fresco, D. M., Alloy, L. B., & Reilly-Harrington, N. (2006). Association of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and positive events and the occurrence of life event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10), 1140-1160. doi:10.1521/jscp.2006.25.10.1140
- Gibb, B. E., Alloy, L. B., Walshaw, P. D., Comer, J. S., Shen, G. H., & Villari, A. G. (2006). Predictors of attributional style change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408-422. doi:10.1007/s10802-006-9022-2
- Glasgow, K. L., Dornbusch, S. M., Troyer, L., Steinberg, L., & Ritter, P. L.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s. *Child Development*, 68(3), 507-529. doi:10.1111/j.1467-8624.1997.tb01955.x
- Houston, D. M. (2016). Revisi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6(3), 192-200. doi:10.1111/jasp.12356
- Hu, T., Zhang, D., & Yang, Z.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outcomes and depress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4(4), 304-321. doi:10.1521/jscp.2015.34.4.304
- John, O. P., Caspi, A., Robins, R. W., Moffitt, T. E., & Stouthamer-Loeber, M. (1994). The "little five": Exploring the nomological network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5(1), 160-178. doi:10.2307/1131373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Y: The Guilford Press.
- Kornienko, D. S. (2016). Child temperament and mother's personality as a predictors of maternal relation to child.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33(17), 343-347. doi:10.1016/j.sbspro.2016.10.148
- Lengua, L. J., & Kovacs, E. A. (2005).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and the prediction of adjustment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21-38. doi:10.1016/j.appdev.2004.10.001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90.

- doi:10.1037/ 0022-3514.52.1.81
- Metalsky, G. I., Halberstadt, L. J., & Abramson, L. Y. (1987). 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actions: Toward a more powerful test of the diathesis-stress and causal mediation components of the reformulated theory of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2), 386-393. doi:10.1037/0022-3514.52.2.386
- Mezulis, A., Hyde, J. S., & Abramson, L. Y. (2006). The developmental origin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Temperament, parenting, and negative life events in childhood as contributors to negative cognitive style.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012-1025. doi:10.1037/ 0012-1649.42.6.1012
- Poropat, A.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al style, gender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7), 1185-1201. doi:10.1016/s0191-8869(02)00008-9
- Prinz, P., Onghena, P., Hellinckx, W., Grietens, H., Ghesquiere, P., & Colpin, H. (2003). The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ing and children's personality on externalizing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2), 95-117. doi:10.1002/per.467
- Prinz, P., Stams, G. J. J., Deković, M., Reijntjes, A. H., & Belsky, J. (2009). The relations between parent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arenting: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2), 351-362. doi:10.1037/a0015823
- Rigby, B. T., & Huebner, E. S. (2005). Do causal attribution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2(1), 91-99. doi:10.1002/pits.20026
- Schneider, T. R., Rench, T. A., Lyons, J. B., & Riffle, R. R. (2012). The influence of neuroticism, extraversion and openness on stress responses. *Stress and Health*, 28(2), 102-110. doi:10.1002/smi.1409
- Schofield, T. J., Conger, R. D., Donnellan, M. B., Jochem, R., Widaman, K. F., & Conger, K. J. (2012). Parent personality and positive parenting as predictors of positive adolescent personality development over time. *Merrill-Palmer Quarterly*, 58(2), 255-283. doi: 10.1353/mpq.2012.0008
- Tiggemann, M., Winefield, H. R., Goldney, R. D., & Winefield, A. H. (1992). Attributional style and parental rearing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7), 835-841. doi:10.1016/0191-8869(92)90058-W
- Velez, C. E., Krause, E. D., Brunwasser, S. M., Freres, D. R., Abenavoli, R. M., & Gillham, J. E. (2014). Parent predictors of adolescents' explanatory styl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5(7), 931-946. doi:10.1177/0272431614547050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3), 465-490. doi:10.1037/0033-2909.96.3.465
- Zhang, J., Miao, D., Sun, Y., Xiao, R., Ren, L., Xiao, W., et al. (2014). The impacts of attributional

styles and dispositional optimism on subject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9(2), 757-769. doi:10.1007/s11205-013-0520-7

논문투고: 17.10.15
수정원고접수: 17.11.21
최종게재결정: 17.11.30